

효성 노조 내분으로 “1노조 2위원장”

2001년 총파업으로 공권력 투입사태까지 초래했던 효성의 울산공장 노동조합이 '1노조 2위원장' 체제로 양분되는 등 심한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.

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, 효성 노조는 2001년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가 물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해 집행부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다.

대의원들은 2월9일 자체적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집행부를 불신임하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데 이어 3월초에는 성병일(타이어코드생산팀)씨를 새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.

그러나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(위원장 박현정)는 지부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의 인준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'임시대의원대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'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.

이에 효성은 대의원들이 이미 집행부를 불신임했기 때문에 파업주도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, 새로 선출된 노조위원장과 노사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효성의 노-노 갈등이 2001년 파업으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해고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의원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3/ 18>